SOCIETY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공개 입양…자녀 정체성 확립·트라우마 최소화"

한 아이 지붕 되어주는 삶, 감정·사랑 쌓여야 가능

'제20회 입양의 날' 행사…49입양가정 117명 참가

"'공개' 입양된 자녀가 정체성을 스스로 확립하고, 트라우마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20회 입양의 날'을 맞은 가운데 입양부모들이 입양에 대해 보수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 10일 광주 북구 생용동 패밀리랜드에서 만난 박형민 전 한국입양홍보회 광주전남지부장은 "결혼하기 전부터 입양을 생각해왔다. 지금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중 한 명은 10개월 때 가족이 됐다. 처음엔 갈등도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돌보는 가족이 됐다"고 말했다.

광주지역에서 20년 간 입양문화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는 그는 '공개 입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전 지부장은 "공개 입양은 자녀에게 입양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정체성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면서 "'공개'는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정체성을 솔직히 말해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고등학생이 된 제 딸은 자신의 이야기를 친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나누고 있다"면서 "이렇게 아이에게 입양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해야 한다. 그래야 트라우마도 최소화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입양 부모는 "결혼이 늦었고 여러 번 유산을 겪다 보니 자연스럽게 입양을 고민하게 됐다"면서 "아이 없이 지낸 시간이 길었고, 그 허전함 속에서 한 아이에게 지붕이 돼주는 삶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입양홍보회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10일 광주 북구 생용동 패밀리랜드에서 제 20회 입양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입양을 결정한 뒤에는 수개월 동안 매주 보호소를 찾아가 아이를 안아보고 시간을 보냈다.

그는 "처음에는 그저 작은 생명이었지만, 매주 만나며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마음이 열리면서 점점 '엄마의 마음'이 생겼다. 아이와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고 신뢰를 쌓아가며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당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입양 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그는 법적 절차부터 생애 주기별 심리 변화, 생부모와의 관계 등 익혔다.

이후 2020년 11월에 생후 9개월 된 딸을 입양하며 '엄마'가 됐다. 하지만 진짜 엄마가 된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었다.

그는 "아이가 울어도 왜 우는지 몰라 당황했다. 피부가 예민해서 기저귀를 갈거나 옷을 벗길 때도 조심해야 했다. 손길의 온도, 말투 하나하나가 아이에게 맞춰져야 했다"면서 "세심한 일상을 함께 보내며, 비로소 '진짜 엄마'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양은 단지 서류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시간, 그리고 사랑이 쌓여야 가능한 일이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광주시와 한국입양홍보회 광주전남지부는 '제20회 입양의 날'을 맞아 입양가정 49가정 117명과 함께 광주 북구 생용동 패밀리랜드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축하공연, 광주시장 표창장 수여, '소망 선언문' 낭독 순으로 이어졌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북구, 대선 투표율 향상 총력

현장 홍보·SNS 활용 등 확대

광주 북구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11일 북구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 향상을 위해 현장 홍보 강화, SNS 활용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지난 9일 청사 외벽에 '민주주의는 투표로 완성됩니다'란 현수막을 내걸고 투표 독려에 나섰다.

북구는 주민들이 자주 찾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생활 SOC 시설 10곳에 현수막을 설치해 투표를 독려한다는 구상이다.

또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에도 현수막을 달아 주민들과 밀접한 거리에서 투표 참여를 권하고, 지역 인구의 약 70%가 거주 중인 공동주택 431개소에 안내방송도 송출한다.

북구는 지난 대선 투표 참여가 저조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차량 방송을 집중 실시하고,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도 전개한다. 북구에서 운영 중인 8개의 SNS에 투표 홍보 콘텐츠를 게시하고, 투표일과 투표소 안내 링크가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송부한다.

투표소까지 대중교통이 닿지 않아 투표를 포기하는 주민이 없도록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셔틀버스는 건국동과 석곡동 내 투표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 투표율을 높인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서구, 전국 첫 '모바일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광주 서구가 전국 최초로 모바일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나섰다.

11일 서구에 따르면 최근 민간 플랫폼인 ㈜웰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 모바일 기반 고향사랑기부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자율 재원을 확보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웰로는 약 4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AI 기반 맞춤형 공공정책 추천 플랫폼기업으로, 서구는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어린이 교통안전 예술제 1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열린 '제12회 어린이 교통안전 꿈나무 창작 문화 예술제'에 참가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 교통 안전'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남대·조선대 의대생 80~90% '유급' 대상

제적은 '0명'…대학 측 "내부 논의 후 최종 처리 방침"

교육부가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의 유급과 제적 처리를 확정·발표한 가운데 전남대와 조선대는 향후 내부 논의를 통해 최종 처리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11일 전남대와 조선대에 따르면 두 대학의 의대 유급 대상자는 전체 학생의 80~90%로 예상된다. 제적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유급·제적 대상자를 확정해 발표했다. 대학별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생들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동맹휴학에 나섰고, 지난 3월 말 전원 복학신청을 완료했다.

그러나 수업 거부로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남대 의대 재적 인원은 893명(의예과 409명·의학과 484명)으로, 지난달 기준 군 휴학 등을 제외한 재학생은 697명(의예과 303명·의학과 394명)이지만, 실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다.

전남대는 의학과의 경우 수업일수 1/4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F학점이 부여돼 유급 처분이 이뤄진다. 의예과는 유급이 없는 대신 학사경고를 받는다. 의학과 3·4학년은 실습 강의에 주 2회 이상 불참해도 유급된다.

때문에 대다수 학생이 유급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 의예과 학생도 전공과목에서 F학점을 하나라도 받으면 유급되도록 학칙에 규정돼 있어 전남대와 유급 규모가 비슷하거나 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대 의대 재적 인원은 878명(의예과 394명·의학과 406명)이며 군 휴학자 등을 제외한 재학생은 668명(의예과 262명·의학과 406명)이다.

지난달 22일을 전후해 모든 의대 과목의 전체 수업일수의 1/4이 지났으나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의 비율은 10%대에 그쳐 많게는 재학생의 90% 가까이가 유급될 전망이다.

전남대는 통상 학년 말에 성적이 나온 뒤 유급자를 확정해온 점을 고려해 내부 논의를 거쳐 유급 처리 방침을 세울 계획이며, 조선대는 조만간 의과대학 운영위원회를 거쳐 관련 절차를 확정하기로 했다.

의대생들의 유급이 가시화되면서 두 대학 모두 '트리플링'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트리플링은 1학년인 2024, 2025학번과 내년 신입생인 2026학번이 함께 수업을 받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트리플링에 대비한 구체적인 학사 운영 계획은 확정하지 않았다"면서도 "과목 분반, 온라인 교육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교육부 결정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남구 통기타 거리 'X·MZ 세대 상권' 육성

사업비 8000만원 투입…야외 버스킹 공연장 등 조성

광주 남구는 11일 대한민국 포크 음악의 성지인 사직동 통기타 거리를 X세대와 MZ세대를 아우르는 골목상권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올해 광주시가 추진하는 지역특화 예비 우수상권 발굴·육성 공모에 사직동 통기타 거리가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비와 구비 등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남구는 통기타 거리 상인들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한 뒤 X세대와 MZ세대 음악인 간 상생 발전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체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직동 통기타 거리 특화 상권 육성 사업은 올해 연말 오픈을 목표로 이 일대에서 진행 중인 시간우체국 건립과 다양한 이야기를 선보이는 살롱 드 사직 프로젝트와 맞물려 사직동 관광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에 남구는 통기타 거리에 X세대와 MZ세대 콜라보레이션을 위한 야외 버스킹 공연장을 만들고, 평일과 주말에도 버스킹을 상시로 이어갈 계획이다.

또 현재 비어 있는 상가 2곳을 청년 점포로 유치해 연간 임대료 50%를 지원하고, 사직동 통기타 거리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해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광주시민을 비롯해 광주를 찾는 타지인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